



선동열 KIA 감독

KIA 선동열·LG 김기태·넥센 염경엽 ... 프로야구 광주일고 출신 감독 시대

‘야구 천재’ 이종범은 한화 코치 스토브리그 뜨겁게 달궜을 듯

광주일고가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새 사령탑을 찾고 있던 넥센이 10일 염경엽 작전·주루코치를 감독으로 전격 승격시켰다. 염경엽 신임감독이 넥센을 지휘하게 되면서 프로야구에는 광주일고 출신의 감독 3명이 포진하게 됐다.

친정팀으로 돌아온 선동열 감독(81년 쫄)이 광주일고 사령탑 만행이고, 올 시즌 LG를 맡은 김기태 감독(87년 쫄)과 넥센 염 감독이 동기 사이다. 염 감독이 68년생으로 김 감독보다 한 살이 더 많지만 총장중시절 1년 공백이 있어 동기가 됐다.

염 감독까지 포진하면서 현직 3명의 감독이 광주일고 동문으로 구성됐다.

화려한 선수시절을 보냈던 선 감독

과 김 감독에 비해 염 감독은 선수로서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

내야수 출신인 염 감독은 고려대를 졸업한 1991년 태평양 돌핀스에 입단한 뒤 2000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은퇴할 때까지 통산 타율 0.195, 홈런 5개, 110타점을 남기는데 그쳤다.

은퇴 후 현대 운영팀에서 활동했던 염 감독은 LG 스카우트로 광주일보가 주축하는 무등기 현장을 찾기도 했다. 운영팀장까지 올랐던 염 감독은 현대와 LG에서 두 차례 수비 코치를 맡으며 지도자 이력을 쌓았다.

하지만 지도자로서도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구팬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센은 프로야구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부분을 높게 사 염 감독을 선택했다.



김기태 LG 감독(왼쪽)과 이종범 한화 코치.

염 감독까지 합류하면서 광주일고 동문들의 지략싸움이 2013시즌 프로야구 그라운드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광주일고가 배출한 ‘야구 천재’ 이종범도 스토브 리그를 뜨겁게 달궜었다. 타이거즈에서 9번의 우승을 이뤄낸 김응용 감독이 한화에서 깜짝 복귀를 하면서 광주일고 출신의 ‘야구 천재’ 이종범도 은사를 따라 한화에



염경엽 넥센 감독

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스승의 부름을 받은 이종범은 10일 한화와 연봉 5000만원에 계약을 끝내고 2013년 그라운드에 돌아온다. 스토브리그 광주일고 마지막 바람

은 넥센의 서건창이 일으킬 예정이다.

시즌 막판 이용규를 압박하며 도루 2위에 오른 서건창은 방출 설움을 딛고 넥센의 톱타자로 우뚝 서면서 신인왕을 예약해둔 상태다. 11월5일 열

리는 시상식에서 신인왕 트로피를 받게 되면 박재홍에 이어 광주일고가 배출한 두 번째 신인왕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체육인들의 ‘가을잔치’ 전국체전 대구서 개막

런던올림픽 스타 대거 출전 ... 광주 14위·전남 11위 목표

체육인들의 ‘가을잔치’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11일 대구에서 개막한다.

‘달구벌’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7일까지 7일간 계속되며 세종시가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17개 시·도의 경쟁으로 전개된다.

지역의 명예를 건 2만4159명(선수 1만8252명·임원 5907명)의 선수단은 45개(정식 42·시범 3) 종목에서 우승을 향한 열전을 벌이게 된다.

광주는 톨라와 카누를 제외한 43개 종목에 1125명(선수 991·임원 13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14위 유지다.

광주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선수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낸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도마의 신’ 양학선이 광주대표로 금빛 착지를 준비하고 있다. 남자 체조 단체전에 출전해 런던 무대를 밟았던 김희훈도 양학선과 광주의 메달 사냥에 힘을 보탠다.

‘신궁’ 기보배의 거침없는 질주도 계속된다. 광주시청 소속으로 뛰고 있는 기보배는 런던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양궁월드컵파이널 우승 자리까지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낙마사고로 런던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근대 5종 황우진의 전국체전 우승 도전도 이뤄진다.

광주 육상팀의 전력도 탄탄하다. 한국 도약 종목의 지존 김덕현이 멀리·세단뛰기에서 2관왕을 노리고 있고, 박태경도 110m 허들에서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준다.

전종목에 출전하는 전남은 1625명(선수 1210·임원 415명)의 선수단을 내세워 순위싸움을 벌인다. 11위 수상을 내세운 전남은 부전승으로만 1977점을 획득하는 등 대진추천 결과가 좋고 지난해보다 전반적인 전력 상승으로 목표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지난해 1만2808점을 획득한 고교부에서 1만3200여점을 기대하고 있고, 대·일반부도 1만5257점에서 1만7384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대회 2관왕에 올랐던 ‘금빛 왕크’ 이용대가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에 그치며 아쉬움이 남지만 런던 올림픽 사이를 개인도로 13위에 오르며 깜짝 활약을 한 나야름의 질주가 기대된다. 나야름을 필두로 한 나주시청 사이클팀의 금빛 질주도 예고된다.

국가대표 최복음이 이끄는 광양시청의 스트라이크 행진도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 1초’ 산악인 김홍빈 金 놓쳐

전국 장애인체전, 런던 금 김란숙 양궁 5관왕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란숙(양궁)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5관왕에 올랐다.

김란숙이 10일 제32회 장애인전국체전 여자 양궁 경기에서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명종시켰다. 9일 여자 리커브 60·70m에서 금빛 과녁을 쏜 김란숙은 10일에는 30·50m, 개인 종합 우승까지 달성하며 5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리커브의 이명구도 30·50m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이 됐다.

육상의 김하은(T11~T12)도 전날 100m에 이어 2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2관왕이 됐고, 불링 서영춘과 사격 김근수(혼성 공기소총 복사 개인전)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의 금메달 페레이드와 함께 광주는 8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열 손가락없는 산악인’ 김홍빈(C4/C5)이 개인도로독주 30Km에서 1초 차이로 금메

달을 놓쳤지만 대회 두 번째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10개의 은메달과 11개의 동메달로 쏟아졌다.

전남도 효자종목 양궁을 앞세워 11개의 금메달을 싹쓸이 했다.

여자 양궁 리커브(ARW2)의 이미향이 30·50·개인종합 우승으로 3관왕이 됐고, 남자 리커브(ARST)에서는 이학영이 30·50m에서 금메달을 명종시켰다.

사격 국가대표 이윤리는 혼성공기소총합 사종목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 선철성도 남자 74kg 데드리프트와 파워리프트에서 1위에 올랐다. 태권도 겨루기는 이학성과 보치아의 유원종과 댄스 스포츠 라틴 삼바의 김유나·박영철도 전남에 값진 금메달을 안겨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체전 리허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에서 개막식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11일 공식 개막해 17일까지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1만8252명)와 임원(5907명)을 합쳐 2만4000여명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영암 F1 내일 개막 ... 낮선 용어 알고봐야 재밌다

“해어판에서 그림이 부족해지며 활락 현상이 발생한 A선수, 코너 빠져나오며 스로틀 페달을 밟아보지만, 추월을 허용합니다.”

영암에서 열리는 F1 월드 그랑프리를 즐기고 싶어도 낮선 용어를 듣다 보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주행 중에 순위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KERS(운동에너지회생장치)·DRS(저항감소장치)에 대한 이해는

▲데브리(debris) = 사고 때문에 트랙 위에 떨어진 파편.

▲다운포스 = 달리는 차를 아래로 누르는 공기의 힘. 타이어를 통해 엔진의 힘을 지면에 전달하려면 다운포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F1 머신의 앞뒤에 달린 날개가 주로 다운포스를 만들어낸다. 보통 시속 300km로 달리는 F1 머신의 프론트 윙에는 약 600kg, 리어윙에는 약 1t의 다운포스가 걸린다.

빠른 기록이었다.

▲리타이어 = 사고나 기계 결함 때문에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

▲마셜(marshall) = 서킷에 배치된 F1 공식 진행요원. 관중을 보호하는 것에서 불길에 휩싸인 드라이버를 구해내는 일까지 마셜이 맡는다.

▲백마커 = 선두에 한 바퀴 뒤처진 차량.

▲섹터 = 서킷 한 바퀴를 나뉜 구간. 보통 1랩은 3섹터로 나뉜다.

▲스튜어드 = 그랑프리 of 심판 역할을 하는 최고 등급의 운영요원.

▲스핀 = 그림을 잃은 차량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슬립스트림 = 앞차와 바짝 붙어 주행함으로써 공기 저항을 줄이는 주행 방법. 같은 조건에서 달리는 앞 차보다 공기 저항이 작기 때문에 더 큰 가속을 받을 수 있고, 추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버스티어 = 리어 타이어의 그림이 충분하지 않아 원하는 것보다 차체가 더 많이 돌아가는 현상. 스핀의 원인이 된다.

▲점프 스타트 = 부정출발. 5개의 붉은 신호가 꺼지고 24대의 머신이 일제히 출발하는 모습은 F1의 백미다. 신호가 꺼지기 전에 출발하면 센서로 적발이 가능하다. 점프 스타트가 확인되면 페널티를 받는다.

▲패드(paddock) = 팀 장비가 보관되고 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한 구역.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리타이어 - 사고·기계결함으로 레이스 포기

데브리 - 사고 때문에 트랙 위 떨어진 파편

마셜 - 서킷에서 선수·관중 보호 진행 요원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이외에도 뉴스 기사나 중계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그리드 = 레이스 출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트랙 바닥에 그려진 격자. 예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레이스 출발 순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립 = 타이어나 지표면 사이에서 마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마찰력이 높아 머신이 트랙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 ‘그립이 높다’, 마찰력이 낮아서 잘 미끄러지면 ‘그립이 낮다’고 말한다. 마찰력이 크게 부족해지면 ‘그립을 잃었다’는 표현을 쓴다.

▲DRS(Drag Reduction System) = 리어윙의 날개 각도를 조절해 원하는 시점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 예선, 연습주행에서는 드라이버가 원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지만, 결선 레이스에서는 앞 머신과의 간격이 1초 이내일 때, 지정된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DRS 사용 여부에 따라 시속 300km 이상 초고속 구간에서 약 10km 내외의 속도차가 발생한다.

▲랩 타임 = 트랙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린 시간. 지난해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제바스티안 페렐(독일·레드불)이 5.621km를 1분39초605 만에 돈 것이 가장

프로배구연맹 새 총재

구자준 LIG손보 회장



구자준(62·사진) LIG손해보험 회장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새 총재로 추대됐다. 현대캐피탈·대한항공(남자부), 도로공사·흥국생명(여자부) 등 프로 4개 구단 단장으로 이뤄진 총재 추천위원회는 10일 구 회장을 찾아 배구연맹 총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남자부 LIG손보 구단의 한 관계자는 구 회장이 고심 끝에 이들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동호 전 총재가 전격 사퇴한 이래 1년간 총재 공백 사태를 겪은 배구연맹은 마침내 새 총재를 맞이하고 2012~2013년 정규리그를 시작한다.

연맹은 1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새 총재 추대를 확정한다.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한양대를 나온 구 회장은 금성사 상무, 럭키금성사 상무를 거쳐 2006년부터 LIG손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배구연맹은 이 전 총재가 사퇴한 이후 정치인·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새 총재를 물색해왔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11월3일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구단 사이에서 더는 총재 공석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으면서 남녀 각 구단의 구단주가 돌아가며 연맹의 총재를 맡는 방안이 떠올랐다.

/연합뉴스